

제9

(3)

(1교시)

▷ 역동적 공간의 창조

- 프로그램(고정된 것)과 **디아그램**(관통) : 현대철학은 프로그램을 거부하고 디아그램을 말한다.

⇒ 마스터플랜의 죽음 (현대문학에서의 ‘**저자의 죽음**’, 건축분야에서의 **해체주의**)

- ‘심층적 결정론은 표층적 결정론을 동반한다.’

⇒ 상황의 변화는 의미의 변화를 동반. 즉, 사건들이 일정하게 계열화되면 **배치**가 이루어지고 그 배치가 변해 계속 새롭게 **계열화** 되면서 그 **의미** 또한 바뀐다.

- **렘 쿨하스**의 ‘나무도시’ : 건축에서의 ‘마스터플랜의 죽음’을 대표. **최소 설계**를 한 후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변화시킨다. (→사건들의 펼쳐짐을 예견. **시간 속에서 진화하는 공원**을 세움.)

사진16 렘 쿨하스, <서울 신국제공항> 설계도.
자연미, 생태학적 관심, 인프라의 가능성을 결합.

(2교시)

▷ 축지적 공간

- “사건이 비결정적으로 발생하는 공간은 곧 매끄러운 공간이다.”

(→ 사건의 계열화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. 축지적 공간이자 변용태의 공간.)

- ‘축지적’이란? : 축각이 중심이 되며 다른 지각들조차 축각적인 성질을 지니는 것.(cf, 시각적이란, 어떤 사물이 한눈에 들어와 느낌보다는 전체적 구조가 파악되는 것. 예) 데이비드 린(David Lean)의 영화, ‘아라비아의 로렌스’)

⇒ 축지적 공간이란, 전체구도가 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, **더듬는 것**. 이질적인 공간의 변형을 말한다. 내재적으로 마음속에서 관조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**변용태로 다가오는 공간**. (예, **아드리언 허즈**의 ‘주차 방지 레일’은 보도블록이 접혀 주차장 역할을 함. / 일본의 **이토 토요**의 건축 / **안도 다다오**의 ‘**빛의 교회**’)

사진17 안도 다다오, <빛의 교회>

▷ 리좀(Rhizome)공간의 특징

사진18 베이컨, <웅크린 누드를 위한 습작>

* 리좀이란, 중심이 없는 다양체 (예, **베이컨**의 그림)

* 특징

- 다채로운 **접속**(connection) (예, 인터넷 서핑)

- **다질적**(heterogeneity)

- 다양체(multiplicity) (예, 리만 다양체)
- 탈기표작용적(assignify) 도약
- **카르토그래피** : 특이점들의 다이어그램만 뽑아내는 것. (예, 지하철 안내도)
- 데칼코마니(decalsomanie)